

SKT-삼성전자, 세계최초 차세대 클라우드 코어망 개발

2년간 협업, 국제표준 Rel.16 충족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SCP적용 5G 초저지연, 초고속, 초연결 서비스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 최초로 차세대 클라우드 코어망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클라우드 코어망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데이터 트래픽의 인터넷 연결을 위해 단말 인증, 고객 서비스, QoS(서비스품질) 관리 등을 제공하는 이동통신 핵심 인프라로, 이번에 개발한 차세대 코어망은 국제 표준 Rel.16을 충족하는 세계 최초 사례다. Rel.16은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인 3GPP에서 제정하는 5G 2차 표준이다.

이번에 SKT와 삼성전자가 2년간의



SKT 연구원들이 20일 분당에 위치한 5GX 기술그룹Lab에서 '차세대 코어망'의 기술과 장비 성능을 시험해보고 있다. /SK텔레콤

협업을 통해 개발한 차세대 클라우드 코어망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을 기반으로 SCP 기술(앱 모듈간 트래픽 연결·관리하는 기술)을 적용해 5G의 초

저지연, 초고속, 초연결 서비스를 품질 저하없이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은 앱 기능을

모듈 단위로 배포,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5G 상품 개발과 출시 속도가 빨라지고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KT의 SCP 기술인 'T-메시(Mesh)'는 어플리케이션 모듈간 트래픽을 관리하는 차세대 표준 핵심 기술로 통신 속도를 30%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트래픽이 일시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자원 할당으로 안정적 트래픽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불꽃 축제, 스포츠 행사, 지역 축제 등 국지적 트래픽 폭증 상황에서 망 안정성 개선 및 이동 기기국 등 기지국 증설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사는 올 초 5G 고도화 및 6G 진화 기술 공동 연구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양사는 5G 관련

▲네트워크 기술 ▲혁신적인 단말 및 소프트웨어 ▲스마트 솔루션의 공동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방위적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SK텔레콤 박종관 5GX기술그룹장은 "앞으로도 삼성전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차세대 네트워크 혁신 기술들을 지속 선보여 대한민국 5G 기술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상품전략팀장 노원일 전무는 "미래의 우리가 경험하게 될 무궁무진한 5G 서비스 케이스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유연하고 안정적인 코어망과 네트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본격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SUV 명가와 함께하는 즐거운 캠핑 생활



티볼리 에어 넓은 적재공간 차박 최적 2열 폴딩시 최대 적재공간 1440L

올 뉴 렉스턴 안전·편의 모두 갖춰 새로운 파워트레인으로 성능·연비 ↑



쌍용차 티볼리 에어 매직스페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여행이 주목받으면서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2일 온라인여행사 부킹닷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행객 2명 중 1명은 성수기(51%)와 사람이 몰리는 곳(48%)을 피한 거리두기 여행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차박과 차크니 여행객들의 증가로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춘 스포츠 유틸리티차(SUV)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SUV 명가' 쌍용차는 올해 티볼리 에어와 올 뉴 렉스턴을 출시, 일상과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라인업 확대를 통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캠핑 끝판왕 '티볼리 에어'

캠핑 수요가 증가하면서 캠핑에 첫 도전하는 캠린이(캠핑+어린이의 합성어. 캠핑 초보를 일컫는 신조어)도 늘어나고 있다. 차박 경험이 익숙지 않은 캠린이에게 주행성과 안전성 그리고 넓은 적재량을 자랑하는 티볼리 에어는 차박

에 최적화된 차량으로 손꼽히고 있다.

티볼리 에어는 중형 SUV를 넘어서는 720L의 적재공간도 만족스럽지만 2열 폴딩 시 최대 1440L까지 늘어나는 매직스페이스는 185cm의 성인도 편안히 누울 공간을 제공한다.

또 드라이빙과 캠핑을 즐겁게 해주는 국내 최고 수준의 커넥티드카 서비스 인포콘이 탑재됐으며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9인치 AVN 스크린을 포함하는 블레이즈 콕핏을 통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올 뉴 렉스턴' 2030부터 5060까지

11월 출시된 '올 뉴 렉스턴'은 안전과 편의를 위한 필수 사양이 모두 갖춰져 젊은 층부터 중·장년 층까지 모두 만족시키며 국내 SUV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올 뉴 렉스턴의 새로운 파워트레인은 성능과 연비 향상을 동시에 달

성했다.

올 뉴 렉스턴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안전이다. 국내 최고 수준 고장력 강판(81.7%) 비율과 함께 초고장력 4중 구조 프레임을 장착하고 동급 모델 가운데 가장 많은 9에어백으로 최고 안전 성능을 확보했다.

넓은 적재공간도 올 뉴 렉스턴의 장점이다. 트렁크는 784L 용량을 적재할 수 있어 골프백을 가로로 4개까지 수납이 가능해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고 2열 폴딩 시 1977L로 확장되어 독보적인 수준의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쌍용차 관계자는 "캠핑이나 차박과 같이 사람과의 대면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나들이가 인기를 끌면서 넓은 승차공간과 넉넉한 적재 공간, 첨단 기능을 갖춘 SUV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U+, 'U+ 스마트홈 펫케어' 혜택 강화

원격급식기 등 신규서비스 적용

LG유플러스는 반려동물 전용 기기 구성품을 변경하고 가입 혜택을 강화한 'U+스마트홈 펫케어' 신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U+스마트홈 펫케어 서비스(월 1만 1000원, 부가세 별도, 3년 약정 기준)는 반려동물 전용 기기, 반려동물 커뮤니티, 반려동물 배상보험 가입까지 포함된 반려동물 케어 토탈 솔루션이다.

신규 서비스에 포함되는 반려동물 전용 기기는 ▲원격급식기 ▲맘카(CCTV) ▲간식로봇 등 3종으로 구성된다.

원격급식기는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나 원격으로 사료를 줄 수 있는 기기로, 맘카를 통해 반려동물이 밥을 잘 먹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맘카는 외부에서도 집에 혼자 있는 반려동물을 24시간 스마트하게 보고 기록하는 반려동물 전용 폐쇄회로(CC)TV다. '2배줌', '360도 파노라마' 뿐 아니



모델이 'U+스마트홈 펫케어' 신규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라 '오늘의 일상보기', '관찰일지', '스마트알림' 등이 포함됐다.

간식로봇은 원격 간식 토출이 가능한 기기로, 반려동물의 활동량을 높이는 동시에 보상으로 간식을 줄 수 있다. 휴대폰 앱으로 로봇을 직접 조정하며 놀아줄 수 있고, 자율주행도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보험, 커뮤니티, 쇼핑, 호텔 및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제휴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

LG전자, 굿즈 판매 금액 소외계층 전달

LG그램 출시 7주년 기념 굿즈 제작 월드비전에 9400만원 전달

LG그램이 청소년 IT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LG전자는 20일 서울 월드비전 사옥에서 약 9400만원을 월드비전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LG전자는 LG그램 출시 7주년 기념 이벤트로 'LG그램 굿즈'를 제작해 구매 금액 전액을 소외 계층에 기부하는 내용의 클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7월부터 9월까지 '1g 더 가볍게'를 주제로 로우우와 카네이데이 등 패션 브랜드와 가방과 안경, 캠핑용 의자 등을 판매했다. 행사는 1600여명이 참가해 조기 종료되기도 했다.

기부금은 월드비전을 통해 IT 소외



LG전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월드비전 사옥에서 LG전자 한국HE마케팅담당 손대기 상무(왼쪽), 한국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이 IT 소외계층을 위한 LG그램 기부금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LG전자

계층을 대상으로 IT 교육환경을 지원하는 'LG그램 라이브러리'에 쓰일 예정이다. 그램 라이브러리는 성남 청소년 센터와 강원도 청소년 센터 등에 1년간 IT 직업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재용 기자 juk@

KT-디지털대성, 온라인 교육서비스 맞손

비대면 환경 온라인 교육 표준 설계

KT는 교육 서비스 업계 디지털대성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교육 서비스 활성화와 교육계 미래 혁신을 위해 온라인 교육서비스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KT와 디지털 대성은 비대면

환경에서의 온라인 교육 표준을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세대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나간다.

KT는 ABC(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역량을 기반으로 구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디지털대성의 교육 서비스와 콘텐츠 경쟁력을 더해 대한민국 대표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감염

병이나 자연 재해 등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디지털 대성은 KT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자사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KT는 올 연말까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시범 서비스를 마친 후 개선점을 도출해 플랫폼 고도화를 진행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비대면 환경에 최적화된 토탈 교육 서비스의 상용화를 추진한다.

/김나인 기자